"메타버스를 손쉽게" 제주 첫 교육과정 '성황'

스마트폰으로 하는 메타버스 실전 과정
국제미래학회·한라일보·메타버스포럼 주관

스마트폰만으로 다섯 가지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활용 방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국내 대표 미래기관인 국제미래학회와 한라일보,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은 제주에 최초로 '메타버스 실전 과정'을 지난 8일 한라일보 내 제주미래창의캠퍼스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미래사회의 필수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용법을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수강생들은 5시간 과정으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널리 쓰이는 5가지 메타버스(이프랜드, 제페토, 젭, 인게이지, 모임) 사용법을 익혔다. 팀별로, 실전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비즈니스나 공동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겸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을 비롯해 심현수(전 KTis 대표이사)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교육위원장과 차경환 전 서울교대 교수가 진행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한라일보 대표이사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5가지 메타버스 실전 과정' 수료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희망자는 등록민간자격증인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메타버스)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위영석기자

서귀포보건소 치매센터협의체 위원 위촉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지난 8일 치매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협력으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서귀포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서귀시지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등 8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결과를 비롯해 향후 계획 보고 및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관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농협 해병대 제9여단에 농축산물 지원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와 마늘제주협의회(회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는 지난 7일 해병대 제9여단(여단장 박성순)을 방문해 농축산물(4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농축산물 지원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이 영농철에 인력난을 겪는 도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민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병대 제9여단은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바쁜 농사철마다 해마다 2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평화적십자봉사회 여름 김치 나눔 봉사

평화적십자봉사회(회장 김소현)는 지난 8일 적십자사 앞마당에서 봉사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열무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어려운 이웃에 여름철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원들은 열무김치 700kg을 담가 사회복지시설 4곳과 취약계층 65가구에 전달했다.

도리초 학생들이 부른 '119사랑법' 대상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21회 전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도내 유치부 7개팀·178명, 초등부 5개팀·111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회 결과 유치부 대상은 '우리들은 안전 젠틀맨'을 부른 예원유치원이, 초등부는 '119사랑법'을 부른 도리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팀은 오는 10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해 솜씨를 뽐내게 된다.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사랑의 쌀 기탁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만덕로타리클럽(회장 장희순)은 지난 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을 열고 사랑의 쌀 5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제주만덕로타리클럽이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 기념 화환과 함께 받은 쌀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한라요양원을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표현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기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표현어린이집(원장 한영숙)은 지난 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에 저소득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한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32만8700원을 전달했다.

하귀여성의소대 쌀 기부 캠페인 동참

서부소방서 하귀여성의용소방대(대장 윤명춘)는 지난 7일 제주도푸드뱅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자색보리쌀 450kg을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해양 정화활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백상훈)는 지난 7일 회원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 일대에서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바다환경보전협 해양쓰레기 수거

(사)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회장 한광수)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해안가에서 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5t가량을 수거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